



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로 경기부양 시사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중국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.5%포인트 인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.

- 5월 18일부터 지급준비율¹⁾을 인하할 것이며 최근 6개월간 세 번째 인하임.²⁾
- 대형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 20.0%로,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6.5%로 각각 낮아짐.
- 이번 조치로 3,500억~4,000억 위안(약 64조~73조 원)의 유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■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 증가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임.

- 내수와 수출 지표들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/4분기가 경기저점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됨.
 - 4월 산업생산은 대내외 수요 부진과 제조업 내 높은 재고부담으로 전년동월대비 9.3% 증가하는 데 그쳐, 2009년 5월(8.9%)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.
 -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4.1% 증가하여 증가율은 3월(15.2%)보다 낮아졌고, 1~4월 도시 지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0.2% 증가하여 증가율은 3월(20.9%)보다 낮아짐.
 - 유럽의 경기 침체, 미국과 일본의 저성장으로 4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.9%로 지난 달(8.9%)보다 둔화됨.
 - Bank of America는 중국 경제가 2/4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4월 통계로 볼 때 경기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8.5%에서 7.6%로 하향 조정함.
-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대외환경이 악화된 데다 10년에 한번 있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'보시라이 스캔들'까지 터지면서 안팎으로 불안감이 확산됨.

■ 특히, 중국 정부는 신규대출 감소, 통화(M2) 증가율 둔화로 유동성 여건이 악화된 것이 경제 경착륙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급준비율을 인하함.

1) 은행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함.
 2) 2011년 12월 24일, 2012년 2월 24일에 지급준비율을 인하함.

- 4월 신규대출은 681억 8,000만 위안으로 3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, 통화(M2) 증가율은 12.8%로 2개월 만에 둔화됨.
- 2011년 까지 중국 경제의 부담요인이었던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됨.
 -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.4% 상승하여 상승률은 3월(3.6%)보다 하락함.

■ 그러나 중국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.

- Wall Street Journal은 현재 금융권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며 기업의 대출수요도 적기 때문에 지급준비율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고,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지급준비율 인하보다 기준금리³⁾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2월 이후 산업 부문 대출은 크게 늘지 않았으며, 전체 대출 중 산업 부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함.
 - 기업 이익 악화, 불확실한 대내외 경기 전망, 중국 권력 이양기 도래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꺼리는 것으로 보임.

■ 반면,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관리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.

- 중국관영 증권보는 경기 성장세 유지와 적절한 규모의 유동성 유지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.
- 호주뉴질랜드은행그룹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약하고 외부 위험은 높아지고 있는 만큼 6월 중순에 다시 지급준비율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함.
 - 중국의 지급준비율 수준은 미국 및 유럽보다 2배 가량 높아 추가 인하 여지가 큼.

(Wall Street Journal, 5/11)

3) 중국의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를 의미하며, 현재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6.56%임.